

# 故 이해찬 장례 이틀차... 반기문·정몽준·윤상현 등 추모 발길

### 민주당 지도부·국힘 인사·경제계 등 조문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28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전 날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고인을 기리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인 정재래 민주당 대표 등이 이날도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았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언주·강득구·이성운·문정복·황명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이른 오전부터 빈소를 방문했다.

오전에는 입관식이 엄수됐는데, 김 총리와 정 대표 등이 유가족과 함께 입관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와 참여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았다. 그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4년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전 총리에게 감명을 받았다"며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늘 존경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인도양 쓰나미로 이 전 총리와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했다면서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전 총리께서 앞장섰다"며 "우리 민주주의와 행정, 정치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경제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큰 지도자를 잃었다"고 말했다.

7선 의원을 지낸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은 "이 전 총리는 항상 새 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라서 의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13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국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들었다. 이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조성해 올랐는데 고비고비마다 큰 역할을 하셨다"며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할 일이 많으신데 너무 일찍 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총리는 고향 선배고, 제 조부와 고인의 부친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며 "이 전 총리는 일생 동안 국가와 정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 진영이 다르더라도 정치와 국가에 헌신하고 봉성한 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애

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큰 어른"이라며 "노동 운동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빈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를 기렸다. /뉴스1

# 김건희 '통일교 청탁' 징역 1년8개월... 주가조작·무상 여조는 무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 사상 첫 동시 실형받아

### 그라프목걸이 몰수·1200만원 상당 추징

###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음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을 받게 됐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군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사별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군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재판장을 바라보지 않은 채 미동 없이 주문을 들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퇴정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군으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사별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 선고 및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뉴스1

# 광주·전남 금고 이자율 보니 지역 같아도 수익 격차 '뚜렷'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간 금리 편차를 지적한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13일 기준)을 보면, 광주·전남을 포함한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금리가 최대 1%포인트(p)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돼 온 금고 이자율이 전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행정부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체인 광주광역시 본청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2.40%로 집계됐다. 6~12개월 예금 2.10%, 3~6개월 중기예금 2.05%, 1~3개월 단기예금 1.95% 수준이다.

전남도 본청은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2.29%, 6~12개월 2.33%, 3~6개월 2.32%, 1~3개월 단기예금 2.27%로 나타났다. 장기예금 기준으로는 광주가 전남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광주 시·군·구·서구 '최고', 나주·강진은 하위권 분류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가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서구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3.35%로, 광주 본청보다 1%p 가까이 높다. 6~12개월 예금은 2.86%, 중·단기예금도 2.66%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광산구는 12개월 이상 2.86%, 6~12개월 2.76%로 뒤를 이었다. 반면 남구는 장기예금이 2.34%에 그쳤고, 동구·북구는 2.4~2.6%대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 시 단위 지역에서는 순천시(2.41%)와 여수시(2.40%)가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기준 상위권을 기록했다. 목포시와 광양시는 2.35% 수준이었으며 나주시는 2.20%로 하위권에 속했다.

군 단위 지자체는 대부분 2.20% 안팎이었으나, 해남군·무안군(2.25%)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진군은 2.04%로 최저였다.

◆지역 협력사업비 반영 여부 등 따라 수익 달라져... 단순 비교 지극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추정 편차와 실제 편차의 차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했고, 이자 추정 시 기금 이자 수입의 미반영 등으로 금리가 낮게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성 예금을 대상으로 한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금리'와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입출식 예금을 포함해 발표한 금고 금리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자체의 금고 이율은 금고 선정 시 '지역 협력사업비 규모' '금리 배점'을 담은 평가표 구성 '1~2금고 선정 입찰방식' '입찰에 참여한 경쟁 은행 수'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보다는 종합적인 비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방 정부별 금고 이자율은 '지방재정365'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